

술 종류부터 즐기는 법까지...우리 술 이야기가 술~ 술~



백종원의 우리술

백종원 지음

담양은 대나무의 고향이다. 예전에는 죽세공품의 생산지로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은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힐링 관광지로 유명하다.

대나무의 쓰임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대나무와 연관된 술이 있다. 어떤 이들은 한두 번 맛을 봤을 수도, 또 어떤 이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다.

담양을 대표하는 양조장이 있는데 그 명칭이 '추성고을'이다. 대표 술은 '추성주'다. 양대수 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22호)은 집안에서 4대째 전해오는 '추성주'를 복원해 빚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담양은 추성고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추성주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바야흐로 약 1천 년 전인 고려 문종 때 일이다. 담양 인근에 연동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은 스님들이 빚는 곡차 맛이 유명하기로 자자했다. 늙은 살팽이가 인간으로 둔갑해 흠뻑 먹곤 했다. 그러다 어느



전설의 술 제조법이 양대수 명인 집안으로 전해진 것은 명인의 증조할아버지 때다. 불교신자였던 명인의 증조부는 시주에 대한 보답으로 스님으로부터 제조법을 배우게 된다.

술을 빠져드는 우리 술에 대한 세계를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우리술의 종류부터, 즐기는 법, 그리고 술을 빚는 이들의 이야기 등을 담은 '백종원의 우리술'은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요리하는 CEO'이자 의식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대표가 저자다. 그는 그동안 유튜브와 TV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술을 알려왔다.

그는 방송 촬영을 위해 외국에 나가면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맛보곤 했다. 그때마다 다양한 술의 향연에 놀랐다.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막걸리, 약주 등 발효주 외에도 소주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자는 3~4년 전부터는 술빚기에 매달렸는데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매력에 빠져들었다. 지역 양

조장도 찾아다니고 우리술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했다. 우리술의 풍부하고 깊은 세계로 안내하는 입문서는 그렇게 탄생했다.

저자는 전국 39곳 양조장을 찾아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양조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서 언급한 추성주는 약주, 증류주 두 가지가 있다. 추성고을에서는 약주에는 '대잎술', 증류주에는 '추성주'라는 제품명이 표기돼 있다. 약재를 침출해 '대잎술'을 만들고, 이를 증류 후 다시 약재를 넣어 2차로 침출하면 '추성주'가 완성된다.

강진 병영에는 옛 병마절도사와 병사들이 마셨다는 '병영소주'가 있다. 김견식 명인은 말단 공장직원으로 시작해 경영주가 됐다.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병영소주와 병영양조장을 위해 보냈다.

'병영소주'는 밑술인 주모를 만들고 여기에 보리쌀로 고두밥을 지어 거둬 덧술하는 일종의 삼양주 방식으로 발효하여 증류를 위한 술덧인 발효주를 빚는다. 그 발효주는 쌀로 빚은 것에 비해 색이 거뭇하고 단백질과 기름기가 많은 형상을 지닌다. 이를 상압으로 두 번 증류하면 색이 맑고 부드러운 스파이시한 향에 은은한 단맛을 내는 '병영소주'가 된다.

소주의 맛은 숙성에 달려 있다고 믿는 충북 충주의 '담을술공방'의 대표 이운은 직접 숙성향아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개발 후 판로가 막히면서 직접 술을 빚었다. 이곳의 소주 브랜드는 '주향'으로 '탄내나 누룩 냄새가 없는 깔끔한 맛'을 지닌다.

이밖에 책에는 양양술곳간, 보은송로주, 해남진



담양을 대표하는 '대잎술'과 '추성주'는 이 지역 양조장인 '추성고을'에서 만든다.

(김영사 제공)

양주, 보은송로주, 신평양조장, 제주생주 등 다양한 우리술 양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우리술을 찾는 방법, 술맛을 결정하는 누룩, 누룩을 사용하는 방법, 내 맘대로 담그는 술, 담금주 이야기 등 술과 관련된 상식들도 소개돼 있다.

보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미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책이 '우리술'의 이해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고, 이 책을 계기로 더 많은 '우리술' 관련 책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라고 밝혔다.

(2만4800원·김영사)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류시화 지음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과 나는 단순히 같은 책 한 권 읽는 정도가 아니라, 글 쓴 작가와 그 글 읽는 사람의 더할 수 없이 돈독한 사이입니다. 당신과 나의 고티가 통해서 두 고티가 환해지고 두 세계의 접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사유와 인생관을 매개로 많은 독자와 소통해온 류시화 시인. 그는 지금까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등 산문집과 시집을 통해 주옥같은 문장과 깊은 사색의 말로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에 류시화 시인이 펴낸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는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다. 이번 책에는 저자가 새롭게 쓴 산문 42편이 수록돼 있다. 전체적인 책을 관통하는 모티브는 '인생과 길'이다.

저자는 "힘든 시기일수록 마음속에 아름다운 어떤 것을 품고 다녀야 한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경제 불황으로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적지 않다. 하루하루 버거울 정도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도 있으며, 자신이 꿈꿨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시인이 건네는 말을 차분히 생각해보면 삶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류시화 시인은 "삶은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이다. 그 다른 인생의 기쁨은 부스러기로 즐기는 것이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인다. 플랜A는 나의 계획, 플랜B는 신의 계획이라고.

(수오서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관계의 언어

문요한 지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노력이나.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렇지 못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좋은 관계에는 서로가 상대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어 긁어주는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작가인 문요한이 나를 잃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 헤아리기 심리학을 다룬 '관계의 언어'를 펴냈다.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 오래된 친구 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받기는 쉽고 관계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저자는 인간관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이유에 대해 '반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읽기에 급급하고 나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책은 총 4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에서는 마음 헤아리기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헤아리기가 결핍된 채로 이뤄지는 배려와 노력이 때로 어떻게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지 얘기한다.

2장에서는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마음읽기와 마음 헤아리기에 따른 언어가 어떻게 다르지 살펴보고, 3장에서는 마음 헤아리기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본다.

마지막 4장은 마음 헤아리기 '대화편'이다. 상대의 마음을 반사적으로 읽어내는 마음읽기가 아닌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헤아림의 언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헤아리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퀘스트·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강강술래학교

윤우상 지음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지만 '초등학교 입학'은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때인 것 같다. 자녀도 부모도 아직 초보이기에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신과 의사가 쓴 편지가 도착했다. 30년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 윤우상이 최근 펴낸 '강강술래학교'가 바로 그것. 저자는 '엄마심리수업1·2'로 육아와 심리학을 접목, 호평받은 바 있으며 즉흥 치유심리드라마 '공감'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온 극연출가이기도 하다.

"부모님의 교육관에 자발성이라는 단어가 일 순위면 좋겠습니다. 자발성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상에서 재미를 찾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부모님 마음속에 자발성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30년 뒤에 내 아이의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자는 육아에 있어서 '자발성' 개념에 천착한다. 모레노의 '자발성 극장' 개념을 연극에 접목해 온 이력도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주도적인 부모 양육을 교육관의 중심에 둘 때 불안함을 넘어설 수 있고, 아이가 독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겁게 다가온다.

"내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면서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긴장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 지킨다'는 화합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책은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힘'도 강조한다.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는 데 주력하는 요즘 부모들에게 오히려 '무엇을 안 해줄지' 고민할 것을 주시시키며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

부모들이 색안경을 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제하고, 과잉보호를 피하며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도 주안점에 둔다.

(오천·1만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